

송영길·홍영표·우원식 3파전...호남 당심 잡기 경쟁

뜨거워지는 민주당 대표 선거

송, 세번째 도전 인지도 앞서

홍, 탄탄한 친문 지지가 강점

우, 진보 의원들과 두터운 교류

광주·전남 잇단 방문 표발 다져

서울시장 보선 승패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총 지휘하는 차기 당 대표는 오는 5월 9일 전당대회(예정)에서 확정된다. 현재 송영길(5선)·우원식(4선)·홍영표(4선) 의원이 일찌감치 3파전 구도를 형성하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100만여명 중 호남이 30만여명에 달해 당권 주자들의 호남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15일부터 광주에서 1박2일, 전남에서 2박3일 등 5일 동안 기자간담회와 지역위원회 방문 등 광주·전남을 돌며 호남 표심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와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책임감을 내세워 호남지역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다.

앞서 홍영표 의원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을 두 차례 방문해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홍 의원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면담하고 지방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19일 광주를 방문해 이용섭 광주시장, 5개 구청장, 시·구의회 의원들을 만났고, 전남을 찾아 단체장, 지방의원, 당원들을 만남을 가졌다. 우 의원은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아특별)·한국에너지공과대학·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은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당권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주자별로 지지층이 뚜렷하게 나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는 대선 승리를 이끌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에게 표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에서는 이들 세 후보가 정치 성향과 지지기반이 일부 겹쳐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당권 도전인 송 의원은 인지도와 조직력이 탄탄하며, 홍 의원은 '민주

주의 4.0' 모임을 중심으로 탄탄한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하고 있다. 또 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더미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당내 진보·개혁성향 의원들과 폭넓게 교류해온 점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들 세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아직은 지지성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고흥 출신의 송 의원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 등을 앞세워 상당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으며, '광주형일자리' 탄성에 도움을 준 홍 의원 또한 이 지역 내 지지층이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우 의원은 이 지역 진보성향의 의원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당권 주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대권·당권 경쟁으로 어수선해질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줄 차기 당 대표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변창흠 시한부 유임...문 대통령 "부동산 공급 대책 마무리하라"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사의 수용

4·7 재보선 때까지는 유임 될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택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나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변창흠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이 유임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LH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이들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

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의 입법과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이후에나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차기 대권 선호도, 이재명·윤석열 24% 동률

한국갤럽 조사...이낙연 11%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묻은 결과 이 지사는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24%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치솟은 24%로 이 지사와 동률을 기록했다.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광주·전라(36%), 인천·경기(35%), 남성(31%), 40대(41%) 등에서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43%가 이 지사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뽑았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37%)과 대전·세종·충청(30%)에서 30%대 지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4%가 윤 전 총장 지지로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1%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지만, 순위는 3위로 내려갔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8%였고 '현 정권 유지에 대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40%였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38%였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54%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로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5%로 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5%였고, 열린민주당은 2%로 나타났다.

4·7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30%, 국민의힘 26%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남도당·전남도 오늘 서울서 당정협의회

한전공대법 제정 등 19개 현안 건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도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도청 간부공무원이 참석, 전남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을 비롯한 9건의 정책 현안을 지역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현안 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 원전 폐로

지역 특별법 지정 및 국가산단 지정 등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도 지역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전남도는 정책 건의 목록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순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립외대대학 신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지방재정분권 개선,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건의 등 9개 사항을 올렸다. /김형호 기자 kh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